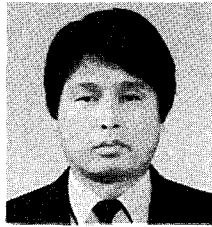


수입개방에 대응한 낙농육우산업의 대응 방안



김 정주
건대농경과 교수

I. 머리말

한국의 농업은 바야흐로 위기를 맞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GATT의 BOP조항을 1989년에 졸업한 이후 무역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중에도 단계적인 자유화가 진행을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GATT에서는 그동안 자국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투입해오던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점차 감축내지는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GATT회원국 모두는 이 결의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 협상의 여파가

거세게 밀려올것을 明若觀火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별것아니라는 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감이 없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된 범위로 국한되지만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란 이를 교묘히 피하면서 외국농산물과 질적으로나 가격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낙농육우산업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혹시 독자 중에는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의 여유를 찾으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다보니, 가능한한 신선도가 높은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유를 소의 젖꼭지에서 바로 인간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착유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우유의 유통체계를 요구하기까지된 것이다.

II. 대응방안

현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수입이 완전개방되어도 외국 농축산물이 설 땅을 찾을 수 없는 품목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도의 신선도를 요구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고도의 신선도를 요구하는 농축산물은 수입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수입된다 하더라도 가격이나 품질 경쟁에서 국내 생산물을 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독특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본 명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 것이 1) 신선 목장 우유생산의 특화, 2) 고급 한우쇠고기 생산의 특화, 그리고 3) 야생동물 사육의 특화사업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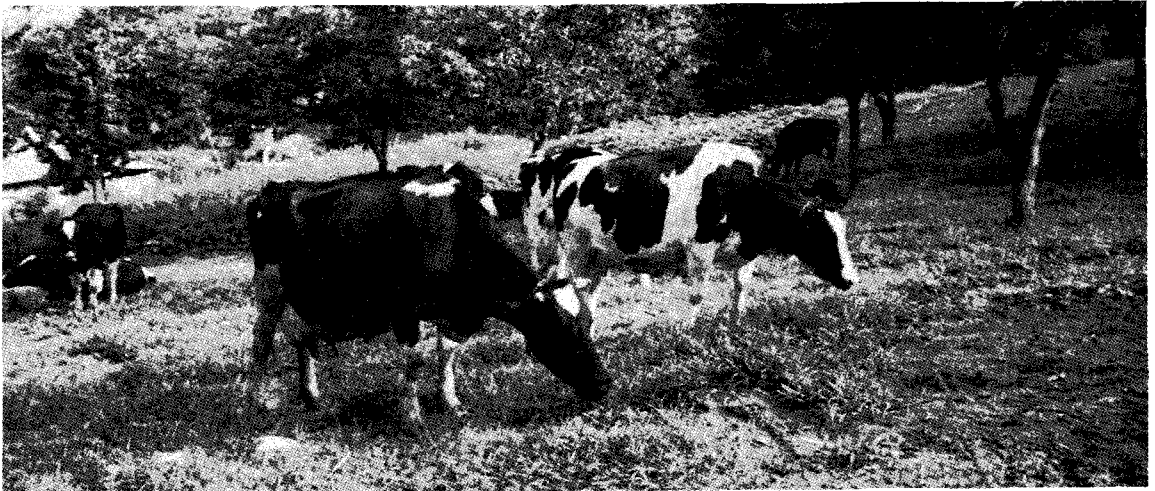
1. 신선 목장우유 생산의 특화

우유는 본래 젖소가 송아지를 분만후 송아지 포유용으로 일시적으로 비유하던 것을 인간이 이를 개량하여 송아지 모유에 필요한 량의 몇배에 상당한 우유를 생산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송아지에게 먹어야 할 우유를 인간이 가로챈 셈이된다. 즉, 우유는 원래 신생동물 먹이가 되므로 완전한 식품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유는 그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1-2일전에 착유한 우유가 비로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신선한 우유를 소비자가 소비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우유는 보통 오후(4-6)와 새벽(보통 4-6시경)에 착유하여 농가단위의 간이 냉장탱크에 저장한 후 2-3시간이 지나서야 집유가 이루어진다. 물론 전일 오후 착유된 원유는 14-15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유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집유차 1대가 자기 관할을 일주하는데도 적어도 2-7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규모가 비교적 큰 우유처리장의 모든 집유차가 관할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오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당일 오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집유된 원유는 각종 검사를 거친후 균질 및 살균과정을 거치고 지방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져 다음날 오전이 되어야 비로소 제품화될 수 있다. 제품화된 우유가 우유 대리점까지 수송되기에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착유일의 다음날 오후나 밤이 아니고는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우유는 착유후 2일이 지난 아침에야 가능하고 소비자가 슈퍼마켓등에서 구입한 것을 오전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상으로 최소한 48-60시간 전에 착유한 원유가 제품화 되어 소비자에게 손에 전달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먹는 신선한 목장우유라는 것이 사실은 48시간전에 착유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의 여유를 찾으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다보니, 가능한한 신선도가 높은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유를 소의 젖꼭지에서 바로 인간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착유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우유의 유통체계를 요구하기까지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유처리 공정이 가장 단순하도록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유가 본래 가져야 하는 위생 수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선 목장우유의 생산을 위해서 독일이나 스위스 지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형태의 마시는 목장우유 (Vorzugsmilch)』예를 들어보겠다.

이 우유의 제조공정을 보면 고도의 신선도와 가공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우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한 젖소군을 우선 확보한다. 이는 살균과정을 생략하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착유과정, 우유의 송수관, 저장탱크등이 완전 멸균상태가 되도록 고도의 청결이 요구된다. 다만 착유과정에서 흡입될지도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심분리 처리만을 행하여 바로 병에 담은 다음 바로 소비자에 배달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의 가공처리로 빠르면 3-4시간 이내에 우유가 젖소의 유방으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우리의 낙농여건에 비추어 너무나 거리가 있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고도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목장우유의 개발은 절박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만일 유제품수입이 수입자유

화될때 지금처럼 48시간에 착유한 우유를 소비자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값싸고 맛이 차이가 없는 수입환원우유를 외면하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유가공업자의 보다 정밀한 분석과 위생처리 규정 설정등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근교 낙농목장에서 건강한 착유우군을 엄정 선발하여 원심분리기와 병(또는 팩) 포장 정도의 시설을 보유한 우유처리장이 필요하다.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협동조합등이 소유한 처리장에서 공동으로 처리되고 공동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모범농가에게 생산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품이 상품화되기에는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협동조합등)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유가공업체의 참여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고급 한우육 생산의 특화

한우는 고기를 생산하는 면에서 보아 다른 육우종에 비하여 체구가 작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고기맛을 개발하여 희소가치를 높인다면 국제 경쟁력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 쇠고기가 값싸게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우쇠고기가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우만을 전문으로 비육하는 목장이 늘고 있으며, 이들 목장의 출하체중도 숫소의 경우 600kg에 이르고 있어 생산비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kg당 3,700원)육질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들 전문목장은 대도시의 전문음식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판매면에서 일단 유리하며, 판매단가도 일반 경락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급 한우육 생산을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은 첫째로, 한우개량사업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우 개량사업은 순종과 외국품종과의 교잡을 통한 신품종 개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부터의 개량목표는 순종의 보존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한우만이 갖는 독특한 고기맛을 유지시키는 일이다. 왜냐면, 수입개방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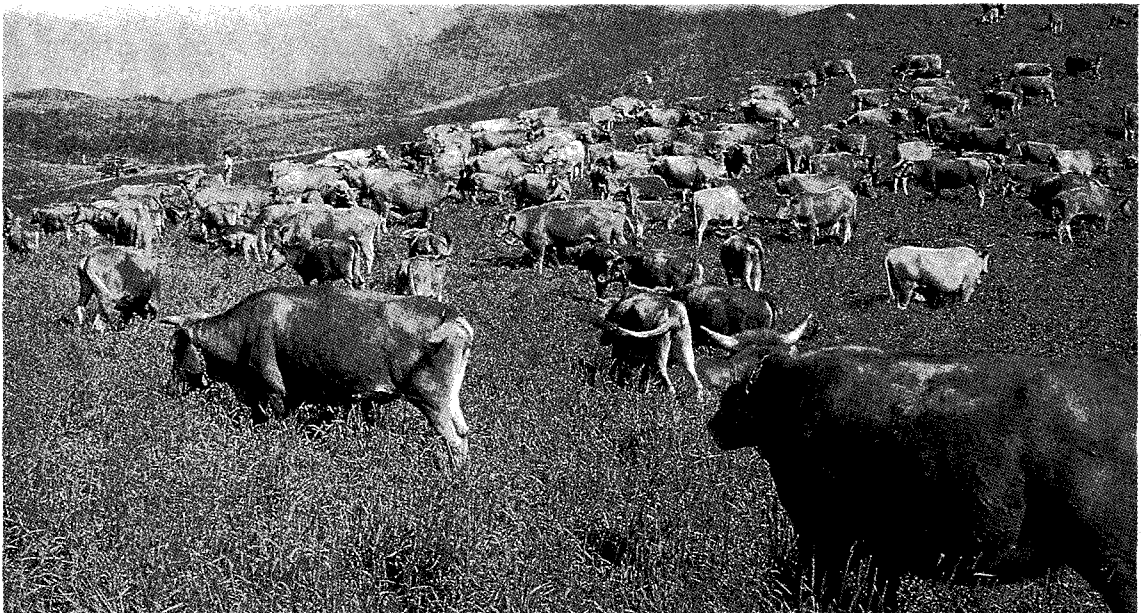
는 양적인 해결로서는 경쟁에 이기는 일이 쉽지 않고 질적인 대결로서만이 경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우의 독특한 고기맛을 소비자들이 잊지 못하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한우 쇠고기 맛이 독특해도 그맛을 모르는 소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쇠고기의 등급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등급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가격제도하에서는 평생동안 쇠고기 등심이나 안심과 같은 고급육 맛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영똥한 부위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 등심으로 알고 이를 즐기는 소비자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쇠고기 생산의 특화사업은 산간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사료문제 해결이 보다 손쉬워질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조사료 조달은 산지의 초지화, 임간방목, 한계지논, 밭의 채초지화를 통하여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



단위로 공공방목장을 운영하여 공동방목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가단위에서 비용부담이 큰 생산수단(기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한편, 한우와 和牛를 비교하여 한우의 육질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일본인에 의하여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다. 즉, 일본의 최대 슈퍼마켓으로 알려진 『다이에이』사가 7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우가 이동중 감량, 종합등급판정 정육율, 고급육구성비(등심+안심)면에서 和牛를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축산 전문 신문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으로 아직 학계에 알려진 것은 아니나 수입개방요구에 대응하여 한우최고기를 고급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분석결과가 일본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표-1> 한우 및 화우의 비교

(단위 : %)

| 구 분 | 한 우 | 화 우 |
|-----------|------|------|
| 이동중감량 | 3.9 | 4.9 |
| B, C급 구성비 | 43.7 | 37.5 |
| 등심및 안심구성비 | 14.1 | 13.6 |

자료 : 농축수산신문(90. 8. 30일자 6면)

3 야생동물 사육의 특화

텐마크가 패전후 “밖에서 잃은 영토를 안에서 찾자”라는 슬로건 아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오늘의 농축산업 선진국을 이룩한 교훈이 있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 수입개방에 의하여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방안으로서 야생동물의 사육을 특화시키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전국에서 꿩, 청둥오리, 사슴, 곰등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이러한 방안이 전혀 황당한 것만은 아니다.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식용이나, 한약재용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전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는 관상 및 수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복지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수출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에 동물원을 설치하거나 유료수렵장을 운영한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야생동물사육은 농가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의 유통체계 및 소비 구조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농축산업정책은 증산위주의 시책으로 생산이 과잉되어 가격폭락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과거에 몇가지 야생동물 사육이 소비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작정 장려되었다가 생산이 과잉되고 가격이 폭락하여 결국 사육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유통소비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시책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낙농 및 육우산업의 현실적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안이 생산농가는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강한 의지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축산업의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 농민, 농업관련 단체 및 학계가 참여한 공동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서 축산산업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한데 어우러진 공동대처가 아니고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